2-25-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마태복음 7:13-14
말씀제목: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한 어떤 말씀들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말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만일 네가 주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치리라."(신 28:14-15)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진리가 아닌 어떤 것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는 날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찾는 자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을 찾는 자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양들의 문**"(요 10:7)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좁은 문이셨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그의 제자들과 몇 사람들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은 대부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으며 진리 밖에서 좌와 우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멸망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 마저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유일하신 진리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이 세워놓은 교파와 전통을 따라가며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행하며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건전한 교리를 따라가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완수하라."(딤후 4:1-5)

마지막 때인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배교한 때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양들의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마지막 대환란에 들어가야하는 것처럼 배교한 하나님의 교회들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엄청난 고초를 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의 종들도 넓은 길로 행하다가 휴거의 날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심판주로 오시는 주의 날을 덫과 같이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마 24:48-51)

지금이야말로 좁은 길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다윗왕처럼 말씀이 비추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김받아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내가 주의 규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주를 두려워하는 데 열중하는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소서…이 말씀은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셨음이니이다…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어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 전에 깨나이다…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을 주소서…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의이기 때문이니이다(시 119:9,11,16,38,50,67,69,103, 105,130,133,140,148,169,172)

예수께서는 마지막 배교의 시대가 올 때에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단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도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라고 하리라.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눅 13:24-27)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유일한 좁은 문이시며 진리의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어 영접하여 진리의 길이신 좁은 길로 행하여 생명 길로 행하다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에 영광스럽게 그분을 만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